



# 4강을 향하여

## ■ 금주의 프로야구

5위를 달리고 있는 KIA 타이거즈가 되살아난 방방이를 끈주세워 4위 진입을 노린다. KIA는 지난주 현대전 3연패 뒤 LG전에서 2연승을 챙기며 상승세를 탄 상태다.

특히 KIA는 지난 21일 LG전에서 연장 10회 역전승을 거두며 선수단의 사기가 오렌만에 정점에 올라있어 이번주 6연전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KIA는 이번 주초(23~25일) 사직구장에서 '꿀찌' 롯데와 3연전, 주말(26일~28일)에는 인천에서 SK와 격돌한다.

22일 현재 프로야구가 전체 504경기의

KIA 타격 회복  
최하위 롯데 상대  
상위권 진입 노려

27.2%에 해당하는 137경기를 소화한 가운데 KIA는 4위 SK를 반 게임차로 추격하고 있다. 따라서 KIA가 '약체' 롯데와 3연전에서 완승을 거둘 경우 4위권 진입도 가능하다.

롯데는 올 시즌 팀 타율 0.219로 공격력이 빈약하고, 타선의 집중력 실종, 믿을 만한 마무리 부재, 톱타자 정수근과 포수

최기문의 부상 등 각종 악재로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어 KIA로서는 승수쌓기에 최적의 상대다. 하지만 롯데의 선발 로테이션이 다소 마음에 걸린다.

롯데는 이번 KIA와의 첫 대결에 '전국구 에이스' 인 손민환을 투입한데 이어 장원준, 엄종석 등 팀 에이스들을 줄줄이 출격시켜 분위기 전환을 노리고 있다.

KIA가 롯데전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주말 SK전에서도 선전 가능성이 높다.

KIA의 이같은 자신감은 시즌 초반 잠자던 방방이가 '안타왕' 이용규를 중심으로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말에 맞붙을 SK가 지난주 5연패 늪에 빠져 있는 것도 KIA에게는 호재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프로야구 중간순위 (22일현재)

| 순위 | 구단  | 승  | 패  | 무 | 승률    | 게임차  | 연속 |
|----|-----|----|----|---|-------|------|----|
| 1  | 현대  | 24 | 11 | 0 | 0.686 | -    | 1패 |
| 2  | 한화  | 23 | 11 | 1 | 0.676 | 0.5  | 2승 |
| 3  | 삼성  | 19 | 14 | 1 | 0.576 | 4.0  | 1승 |
| 4  | SK  | 18 | 17 | 0 | 0.514 | 6.0  | 1승 |
| 5  | KIA | 16 | 16 | 1 | 0.500 | 6.5  | 2승 |
| 6  | LG  | 13 | 21 | 1 | 0.382 | 10.5 | 2패 |
| 7  | 두산  | 12 | 20 | 2 | 0.375 | 10.5 | 2패 |
| 8  | 롯데  | 9  | 24 | 0 | 0.273 | 14.0 | 1패 |

## KIA타이거즈기 초등야구

### 오늘부터 전주서 개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제 4회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초등학교 야구대회를 개최한다.

광주·전남·북지역 야구 꿈나무 발굴을 목적으로 전북야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다.

광주·전남·북지역 15개 초등학교가 참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승팀에게는 우승기와 우승 트로피, 기념메달, 야구용품

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또 준우승과 3위 두 팀에게도 트로피와 기념메달, 야구용품 등을 시상한다.

이밖에 최우수선수 등 개인상 10개 부문을 시상하고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에게는 기념 모자와 캐리커 쿨선 등을 증정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한희원 또 2위

## 사이베이스 클래식 최종...3연패

### '미켈롬' 이어 2개 대회 연속 준우승

'미시골퍼' 한희원(28·힐라코리아·사진)이 2개 대회 연속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희원은 22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뉴로셀의 와이카길골프장(파71·6천161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사이베이스클래식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69타를 쳐 3라운드 합계 3언더파 210타로 우승자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에 2타차 공동2위에 올랐다. 지난 14일 미켈롬울트라오픈 준우승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우승 문턱에서 멈췄지만 한희원은 최근 4개 대회 연속 '톱5'에 오르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오초아와 동반 플레이를 펼친 한희원은 오초아에 1타차까지 따라 붙었으나 15번홀(파5) 3m 이글 퍼트가 살짝 빗나간데다 17번홀(파4) 버디 찬스를 살리지 못해 분투를 삼켰다.

올해 LPGA 투어에 데뷔한 배경은(21·CJ)도 이날 5언더파 66타를 때려내며 분전한 끝에 한희원과 함께 공동2위에 오르는 뒷심을 발휘했다.

작년 LPGA 2부투어를 뛰면서 한국여자프로골프 상금왕에도 올랐던 배경은은 올해 들어 최고 성적을 내면서 신인왕 경쟁에 뛰어든 채비를 갖췄다.

한희원과 배경은의 준우승으로 한국 선수는 올해 열린 11차례 대회에서 모두 7차례나 준우승자를 배출했다.

전날 선두로 나섰던 박희정(26·CJ)은 경기 초반에 4타를 잃으며 미끄러움을 타 4오버파 75타의 부진으로 공동6위(이븐파 213타)에 그쳤다.

선두에 4타 뒤진 채 최종 라운드에 나선 오초아는 보기없이 5개의 버디를 뽑아내는 깔끔한 경기를 치러 역전 우승을 거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찬호 10실점 최악

## 5.1이닝 피안타 10개... 최악 자책점

'코리안특급' 박찬호(33.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올 시즌 처음으로 한 경기에서 홈런 2방을 허용하는 등 한 이닝에만 8실점하는 부진으로 시즌 2패째를 안았다.

박찬호는 22일(이하 한국시간) 워싱턴주 시애틀 세이프코 필드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시애틀 매리너스와 인터리그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 5.1이닝 동안 홈런 2방 등 피안타 10개, 볼넷 2개 등으로 9실점한 뒤 7-9로 뒤진 6회 1사 만루에서 존 애드킨스로 교체됐다. 그러나 애드킨스가 적시타를 맞고 1점을 더 주는 바람에 박찬호의 자책점은 10점으로 늘었다.

박찬호의 이날 10실점(자책)은 1998년 6월22일 '투수들의 무덤' 쿠어스필드에서 벌어진 콜로라도 로키스전에서 기록한 것과 같은 자신의 한 경기 최다 자책점이다.

투구수는 105개, 스트라이크는 66개였다. 시즌 성적은 2승2패, 평균자책점은 3.27에서 4.53으로 치솟았다.

박찬호는 이전 경기까지 시애틀전 통산 9경기에서 5승2패, 평균자책점 2.45로 강했고 세이프로필드에서도 4승1패, 평균자책점 1.54로 뛰어난 투구를 보였지만 샌디에이고에 2연승을 거둔 시애틀의 상승세가 더 무서웠다.

샌디에이고는 8회 조시 바드의 우월 솔로포로 추격했지만 결국 8-10으로 패해 시애틀을 원정 3경기를 모두 패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力士 장미란 세계新

## 한중일 역대 女75kg급 인상 138kg

장미란(23·원주시청)이 한국 여자역도 사상 처음으로 세계기록을 세웠다.

장미란은 22일 강원도 원주여중 체육관에서 벌어진 2006 한중일 국제초정역도대회를 이틀째 여자 최중량급(+75kg급) 인상 3차 시기에서 138kg을 들어올려 중국의 당메이유안(27)이 2003년 밴쿠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세운 세계기록(137kg)을 갈아치웠다.



23일(화) ▲메이저 그리(콜로라도-LA다저스)(11:00·KBS1, Xports) ▲협회장기 전국 남녀중고농구대회(14:00·KBC)

장미란은 이로써 한국 여자역도에서 처음으로 세계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아직 미공인 세계신기록이지만 이번 대회에 한국과 중국, 일본 1급 국제심판이 배석한 데다 규정된 도핑테스트, 국제역도연맹(IWF) 공식일정 등록 등 세계기록 공인요건을 모두 갖췄다. IWF 총회에서 세계기록으로 승인받을 일만 남았다. 한국으로서는 1998년 12월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김화봉이 용상 세계기록(195kg)을 세운 뒤 약 7년6개월만에 다시 세계기록의 패거리를 달성한 셈이다.

50·SBS스포츠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니혼햄>(17:00·SBS스포츠) ▲프로야구<삼성-한화>(18:00·KBS SKY SPORTS), <LG-SK>(18:30·MBC ESPN) ▲월드컵 평가전<대한민국-세네갈>(19:00·KBC)

## 최경주 공동 17위

### 뱅크오브아메리카콜로니얼 최종

'탱크' 최경주(36·나이키골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뱅크오브아메리카콜로니얼 마지막 날 불꽃타를 휘둘렀지만 아쉽게 공동 17위에 머물렀다.

최경주는 2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콜로니얼골프장(파70·7천54야드)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보기없이 버디 7개를 잡아내며 7언더파 63타로 스티븐 에임스(캐나다)와 함께 데일리 베스트를 기록했다.

전날 공동 57위까지 밀렸던 최경주는 이날 선전으로 최종 합계 6언더파 274타를 쳐 공동 17위로 순위를 대폭 끌어 올렸다.

우승컵은 연장 접전 끝에 리카르트 윈손(스웨덴)을 꺾은 팀 해런(미국)에게 돌아갔다. 해런은 4라운드 합계 12언더파 268타로 윈손과 동타를 이뤘 승부를 가리지 못했지만 연장 2번째 홀에서 버디를 잡아내 1999년 베이힐인비테이션 이후 7년만이자 통산 4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신동정제약주식회사

# 버미플루 1알로

## “환히 웃는 우리가족”

**1회 1정 먹는 구충제 - 버미플루**  
**회충, 요충, 편충, 십이지장충을 한번에 없애줍니다.**

복통, 항문주위의 가려움, 설사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기생충은 인체의 장내에서 피를 빼앗아 가며, 식욕부진, 위통, 실사, 빈혈의 원인입니다. 1회 1정으로 회충, 요충, 편충, 십이지장충을 한꺼번에 없애주는 구충제 - 버미플루이제부터 기생충으로 인한 가족의 질병은 버미플루로 지켜주세요.

1회 1정 복용하는 구충제  
**버미플루 1정**

1회 1정 복용하는 구충제  
**버미플루 1정**